

01 교회소식

“올해도 축복이 넘쳤어요!”

국내외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사와 표적, 권능을 체험하는 만민 하계수련회는 올해에도 특별했다.

02 생명의 말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직분을 귀히 여겨 자기를 발전시키고 영의 것을 사모한다.

03 기획특집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영의 마음을 이룬 사람이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벗어나야 할 '육의 흔적'과 채워야 할 '결여'와 '부족'에 대해 알아본다.

04 간증

주님을 의지해 응답받으세요~

개종한 뒤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받은 또 띠 호영 성도와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대삼포진을 치료받은 윤창수 장로 간증.

만민뉴스

제646호 2014년 8월 1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해외 25개국에서 참석한 만민 하계수련회

“성령의 대폭발로 응답과 치료, 감동과 사랑이 넘쳤어요”



은사집회 후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

지난 8월 4일(월)부터 7일(목)까지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 점핑파크에서 전국 및 해외 25개국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났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 바람과 같이 시원한 성령의 역사, 희한한 일들은 물

론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로 무수한 영혼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특히, 셋째 날 캠프파이어에서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마치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베푸는 연회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무대 위에서 예능위원회의 찬양과 연주, 무용이 펼

쳐졌다. 회중 찬양 인도자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전 성도는 '기다림', '놀이동산', '계절동산' 등 찬양을 함께하며 다시 오실 주님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마음 깊이 사무쳤다. 또한 첫째 날 교육 시간에 있었던 은사 집회 때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

도로 많은 사람이 시력이 회복됐고, 간경화, 하체마비, 위암, 폐암, 신장질환, 폐결핵, 자궁질환, 중이염 등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만민 하계수련회 현장은 GCN 방송(www.gcnetv.org)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됐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2)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

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척, 믿음이 좋고 충성하는 척 하지요. 따라서 자신이 정말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멀리 하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몰랐기에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착각했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마음에 이룬 의로움을 원하십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순간순간 배려합니다. 시기 질투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되면 기뻐하고 상대의 허물이 드러나도 덮어 주며, 항상 상대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판단 정죄해 불편하게 대하지 않고 항상 상대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참이라면 이 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요일 4:20).

또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예배나 기도 시간에 마음을 변화시키고 진실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명도 표시하는 만큼만 하고, 시키는 일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을 다함으로 감당합니다. 혹시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마음이나 속이는 마음이 없는지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직분을 귀히 여겨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명을 맡아 감당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아무 발전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거나, 수년이 지나도록 늘 맡은 일만 한다면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업무에 익숙해졌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지혜를 받아서 끊임없이 발전해 가야 합니다.

한 가지 사명에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 시간과 여력이 남는 만큼 더 많은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궁구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또 세상 전문가들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 발전시켜야 하지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이 상상 못할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더 크게 키워나가며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노력과 열정을 투자해 왔는지요?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충성은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며 변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육적인 실력이 중요하다 해서 영적인 분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학벌과 재능이 있다 해도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화평을 깨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진정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성령의 주관을 받아 육적인 분야도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받아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3. 영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 성령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의 세계와 권능을 체험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에 감사가 넘쳤고 성결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음에 즐거움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의 것을 사

모하기에 시간만 나면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루에도 몇 시간씩 설교 말씀 듣기를 즐겨워합니다. 작은 사명이라도 주 심에 감사하지요. 퇴근 후에도 교회의 모임이 있다면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도 즐겨해 틈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것은 하늘의 소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사모함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으면 어떠한가요? 어찌하든 사명을 적게 맡으려고 하고, 자기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하거나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일이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은 피하려고 개인 시간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지요. 이것은 바로 천국의 상급과 영의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직분자라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마음의 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것을 사모해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정녕 사명을 귀히 여기며 영적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목자의 의중을 알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 가르침을 받으며 깨우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땅엿 것이 아닌 위엿 것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 하늘에 소망을 두고 속이지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직분을 귀히 여겨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고 영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에서 해외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세상에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천재적인 재능으로 연주하는 사람도 있지요. 일생 동안 노력해서 수많은 지식을 쌓고 첨단 기술을 익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재능과 업적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이 땅의 삶이 지나면 끝입니다. 뛰어난 재능도, 방대한 지식과 기술도 그에게 더 이상은 아무 유익이 없지요.

한편 주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명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만큼 아름다운 천국에 영원한 처소와 상급이 주어지지요.

이처럼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의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엿 것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1. 속이지 않는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을 속이거나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전지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6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영의 사람이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육의 흔적을 버려야 한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접한 지식과 경험, 부모를 통해 전달받은 성품이나 기질 등이 흔적처럼 남아 있는데, 이것을 '육의 흔적'이라고 한다.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와도 악이라 할 수는 없지만 원죄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 죄악으로 변질된 세상 가운데 살아왔기에 육의 모습이 흔적처럼 희미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비유를 들면, 새로 나온 물건에는 작은 흠집 같은 것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일단 한 번 사용한 물건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 해도 사용한 흔적이 남게 된다. 육의 흔적이 이와 같다. 또 흰 옷을 오래 입다 보면 아무리 세탁을 깨끗이 해도 원래의 흰색이 나오지는 않는다. 깨끗이 빨아서 더럽지는 않지만 새 옷처럼 순수한 흰색이 나오지 않으며 누런 흔적 같은 것이 남아 있다.

이러한 육의 흔적으로 인해 아직은 온전한 영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결여와 부족이라고 한다. 믿음의 4단계 1~49%에서는 결여 현상이 나타나고, 믿음의 4단계 50~79%에서는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결여와 부족 현상을 채워야 한다

여기에서 '결여'는 조금밖에 없는 상태, 즉 많이 모자라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에 '부족'은 조금 모자란 상태, 조금만 더 채우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여와 부족에는 '사랑의 결여와 부족', '영의 지식의 결여와 부족', '온전한 선의 결여와 부족'이 있다.

이러한 결여와 부족을 채워야 믿음의 4단계 80%를 넘어 믿음의 5단계 곧 온 영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믿음의 5단계 50%를 넘을 때까지는 육의 흔적을 변환시키는 과정을 겪는다.

'결여'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사례

빛의 열매 중 의로움의 열매가 채워져야 하는 경우

무조건 용서하고 품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 책망하고 외면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옳고 그름을 분별함에 있어서도 맺고 끊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발해야 할 때가 있다. 더욱이 머뭇거린 일꾼은 하나님 뜻에 따라 단호하게 행해야 할 때가 있음을 잘 분별해야 한다.

성격적인 것에서 오는 틀이 남아 있는 경우

자신의 마음을 열어 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더 넓은 마음이 될 수 있다. 타고난 성품이나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 성격적인 틀이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하루아침에 깨뜨리려 하기보다는 차츰차츰 깨뜨려야 한다. '이건 내 성격과 도저히 맞지 않다.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한다. 그럴 때 성격적인 틀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고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마음속에 강한 성격의 틀이 있는 경우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맞다, 그르다' 등 강한 성격의 틀이 있다. 덕으로 품어지지 않으면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는다 해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이 밖에도 아직 입술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며 들레는 말들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사람을 목자의 입장이 돼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경우, 하나님과 주님, 목자를 더 크게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근원적으로 너무 깊이 남아 있어 정체를 오래 겪는 경우, 기도의 능력과 의로움이 부족한 경우, 상대를 배려하고 살필 줄 아는 마음이 부족한 경우 등이 있다.

'부족'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사례

성격 속에 내 중심적인 강함이 있는 경우

육의 사람이나 영의 초반에 있는 사람과는 다른 마음속의 나에 대한 강함이 있다. 연단을 통해 버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불같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행함이 부족한 경우

목자의 은혜 가운데 큰 믿음의 분량을 얻었지만 더 깊이 쌓고 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불같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행함의 열매가 더 많아야 한다.

입술의 말에 온전한 선이 부족한 경우

내 입술의 말이 어떤 말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즉 이런 때는 이런 말, 저런 때는 저런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선 가운데 나오는 말인지 깨우쳐 보아야 한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경우

입의 말로 내지는 않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

이 밖에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의로움이 채워져야 하는 경우, 입술의 말이 더 덕스럽고 온유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8 2014 August
08.10~08.16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예언 4
- 천국 31-35
- 창세기 강해9-13
- 사랑장 14-18
- 일곱교회 7-11
- 요한계시록 강해 24
- 요한일서 강해 43

GCN TV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0 (이수진 목사)
- 게으른 자 (이미영 목사)
- 생명수 8-9/ 믿음의 분량 2 (신동초 목사)
- 영의세계 11-12/ 기도 3 (이희선 목사)
- MIS강의15/ 열재앙 2 (정구영 목사)
- 경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2 (김수정 목사)
- 잊지 않겠습니다 (도유리 전도인)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14
- 옛날 옛적에 3
- 모두 드려요 12
- 흥겨운 소리 8
- English 15
- 만민저킴이 7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12
- 찬양 드려요 16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1
- 향기 16
- 뷰티풀 라이프 6
- 플로리스트 5

해외성회 및 교육

- 독일 연합대성회 2
- 회상 13
- 2013 기관장 교육 5-6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사랑의 주님을 만나 제 소원이 이뤄졌어요”

또 티 효영 성도 (해외교구 베트남, 23세)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 남편을 만나 2013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아 안타까워하던 중, 이웃의 전도로 지난 6월 22일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불교신도였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권능의 역사, 기사와 표적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설교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에 계속 참석하다 보니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은 사모함도 생겼습니다.

마침 베트남어로 번역된 만민뉴스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책을 읽고 매우 감동이 됐습니다. 그 후 '나도 축복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한 가지 소중한 체험을 통해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면증에 시달리던 제가 매일 밤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무안단물을 마신 뒤 불면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임신도 가능하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매일 아침 가슴에 손을 얹고 당회장님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잠자기 전에는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받았지요.

예배 때에는 당회장님 설교를 들으며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결심도 하게 됐고, 임신을 위해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근무하는 일터의 사장이 우리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에게 "사장이 교회에 와 본 적도 없고 당회장님 말씀을 들어 본 적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들어 보니 선한 말씀만 해 주셨어요. 죄 짓지 말고,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며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선하고 좋은 것만 가르쳐 준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교회에 다닌 후부터 더 밝고 편안하게 변화된 모습을 지켜 보았기에 이러한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에 출석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당신도 같이 당회장님께 감사 인사 하러 가요."라고 말하는 제게 그러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7월 15일이 되자, 저는 '임신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과연 검사 결과는 임신이었지요. 할렐루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저와 함께 당회장님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지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제가 한국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 이렇게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받아 임마가 됐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안단물:** 성경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이 나온다. 이처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변화돼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고 사용하는 성도마다 응답과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대상포진, 권능의 기도로 치료받았습니다”

지난 6월 중순경 머리에서 열을 동반한 가려움증이 생겨 점차 눈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눈 다래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가시로 콧꼭 찌르는 듯한 고통과 함께 열과 가려움증이 지속됐지요.

저는 정확한 병명을 알고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보시자마자 대상포진이라며 실명될 수도 있고 뼈까지 전이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피부병 중에 입원을 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했지요. 저는 그날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염려하며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한 것 등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20일,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나아갔습니다. 병명이 대상포진인 것과 의사선생님이 말한 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성이 떨어지면 오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당회장님께서 제가 믿음을 내 보일 수 있도록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순간 '돌부리에 넘어져도 주 안에서는 우연의 일치가 없다.'고 하신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이 떠오르며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깨우쳤지요.

당회장님께서는 기도해 주신 후 "회개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회개 거리를 찾아가며 컴퓨터에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불편한 마음, 졸음 가운데 예배드리고

잡념 속에 기도했던 것, 가정에서 나를 주장한 일 등 깨우친 것만도 무려 30가지가 넘었지요. 저는 조목조목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2, 3일이 지나자 광대뼈와 목뼈로 전이된 통증이 사라졌고 열과 가려움증, 통증도 사라졌지요. 그 뒤 병원 검사 결과, 깨끗이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머리쪽에 생긴 대상포진은 심하면 뇌수막염으로까지 올 수 있으며, 균이 90% 이상 잠복하기 때문에 머리와 눈으로 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 기간에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깨끗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성령충만하게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 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윤창수 장로 (2대대 17교구, 51세)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흥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로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성시 성룡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